

사계절 문화 흐르는 서울... 축제일수 18일→75일로 확대

서울문화재단 '아트페스티벌 서울' 비보잉·거리예술 등 라인업 발표 5일~7일 송현광장서 서커스 공연 10월 14일~15일엔 발레공연 펼쳐 서울광장·잠실체육관 등서 행사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서울시

올해 서울 곳곳에서 서커스(봄), 비보잉(여름), 거리예술(가을), 융합예술(겨울) 페스티벌이 사계절 내내 펼쳐진다. 축제 일수는 18일에서 75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문화재단은 2일 '아트페스티벌 서울'의 라인업을 발표했다. 아트페스티벌은 서울의 대표적인 예술 축제들을 하나로 모은 재단의 예술축제 통합 브랜드다.

작년 가을과 겨울에 아트페스티벌 서울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시에서 열린 각종 문화예술 공연에 예술가 1241명, 시민 13만782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재단은 올해 '콘텐츠 강화', '장소 다양화', '축제 기간 연장'을 골자로 아트

페스티벌 서울을 개편했다. 우선 재단은 서커스와 발레 축제를 확대 편성했다. 작년까지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됐던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올해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개최된다. 재단은 "시민의 걸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장소를 옮겼다"며 "예년과 달리 모든 공연을 야외에서 실시해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5~7일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한국·프랑스·캐나다를 포함 국내외

단체의 서커스 작품 14개와 서울스테이지11의 공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올 10월 14~15일 한강 노들섬에서는 발레 공연이 펼쳐진다. 재단은 '시대를 초월한 고전'을 주제로 '백조의 호수'를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유니버설발레단과 발레STP협동조합이 합동 공연을 할 예정이다.

축제 장소는 서울광장, 잠실실내체육관, 문화역 서울284 등으로 다양하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광장 일대에서는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운영된다. 세계적인 공연단과 한

국의 거리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축제라고 재단은 강조했다.

9월 23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이 열린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공연을 일반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서울생활예술주간 선포식, 서울시민합창단, 동행오케스트라, 25개 자치구 대표 생활예술 동호회 경연 등이 포함된 열린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

했다. 문화역 서울284에서는 11월 10일~12월 13일 융합예술페스티벌인 '언폴드 엑스 2023'이 진행된다. 재단 융합예술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5개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시·심포지엄·시민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시민들의 축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페스티벌 기간도 종전 18일에서 75일로 약 4.2배 늘렸다. 재단은 계절별 대표 축제로 ▲'서울서커스페스티벌'(5월 5~7일, 열린송현녹지광장) ▲'서울비보이페스티벌'(6월 3일, 노들섬) ▲'서울거리예술축제'(9월 30일~10월 1일, 서울광장 일대)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Unfold X 2023'(11월 10일~12월 13일, 문화역 서울284)을 꼽았다.

이 대표는 "단순히 재단의 축제를 결합하는 차원을 넘어 사계절 내내 서울 시민과 서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통합 브랜드하고 알릴 것"이라며 "문화도시, 글로벌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독립유공자 후손 120명에 장학금 300만원

서울시-서울장학재단 증손자녀 이하 후손, 15일까지 접수

서울시와 서울장학재단은 독립유공자의 4대 이하 후손 120명에게 장학금으로 3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사업은 국가 지원이 부족한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이하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행 법률상 독립유공

자 후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손자녀까지만 받을 수 있어 그간 증손자녀 이하 후손은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 후손(4~6대)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으로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정규학기의 마지막 학기 재학생, 휴학생, 초과학기 재학생 등에 해당하거나 당해연도 서울장

학재단의 다른 학업 장려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장학생들에게 연간 300만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20% 늘어난 120명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5월 15일 오후 5시까지이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e서울사랑상품권 7% 할인 판매

총 50억 발행... 온라인몰서 사용가능

서울시는 3일 오전 11시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을 7%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행규모는 총 50억원이다. 기존 e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온라인전용판(e서울사랑샵)과 서울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시에 쓸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정의 달처럼 소비 수요가 높은 시기에는 쇼핑전용 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하고 상시 사용되는 배달전용은 매달 정기 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쇼핑전용 상품권의 사용처는 e서울

사랑샵이다. e서울사랑샵은 서울시와 11번가가 제휴·운영 중인 소상공인 온라인전용판으로, 7만여 소상공인 상품 약 2700만개를 판매하고 있다.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은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해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 앱에서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살 수 있다. 1인당 총 100만원까지 보유 가능하다.

상품권은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상단에 e서울사랑상품권 표시가 있다면 이용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전세사기 피해, 법률상담 해드려요”

경기도, 옛 팔달 도청사에 지원센터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전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난 3월 임시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상담 공간과 운영 인력을 확대해 이날 옛 도청사(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정식 개소했다.

도는 GH 직원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 상담 인원을 늘리고, 경기도와 화

성시 공무원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상담과 운영 인력을 모두 25명으로 확대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상담 내용은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 등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신속한 상담과 전세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옛 경기도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 이전했다"고 말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교육부, 도서읍면 등 학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교육부는 소방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도서 읍면 및 도시 외곽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안전체험시설을 갖춘 체험차량과 안전전문가(소방관·교통안전교육지도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화재안전, 지진대피, 교통안전 등의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7년 소방안전체험교육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2018년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추가해 교육내용을 더욱 내실화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5 | 해질 / 19:23

5월 3일 (수) 음력 : 3월 14일

수도권 날씨 13~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8/25, 동두천 10/25, 가평 9/26, 파주 8/24, 서울 13/25, 양평 12/25, 인천 13/22, 수원 14/24, 용인 14/24, 백령도 10/17, 평택 11/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美 25개 방산대표단, 대만 방문...드론 공동개발 기회 모색
▲ 우크라이나 선수 출전에 세계유도선수권 참가 거부 /사진 뉴스스

▲ 中 노동절 '황금연휴'...민족 대이동에 항공 승객 500% 폭증
▲ 프랑스, 노동절에 불 붙은 '연금법' 시위...230만여명 참여



▲ 유엔 난민기구, 수단에서 80만명 이상 난민 발생 경고 /사진 뉴스스
▲ 호주중앙은행, 한 달 만에 기준금리 25bp 깜짝 인상